

산소에는 생명자와 악령자가 같이 들어 있다

구세주가 밝히는 과학적 영생 이론

생명자라는 물질이 사람의 핏속을 통해서 사람의 몸의 세포에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 나온다. 그 생명자라는 물질은 바로 산소 속에 있다. 산소 속에는 생명자 뿐만 아니라 악령자라는 물질이 있다. 악령자는 산화 물질이다. 예를 들면 산소를 쉿덩어리예다가 내뿜으면 쇠에 녹이 슬어 썩어서 문들어진다. 썩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악령자이다.

산소 속에 생명자와 악령자가 있다

그런데 산소 속에는 생명자가 있기 때문에 악령자가 있는 것이다. 악령자가 바로 무엇이나 하면 마귀의 신이다. 사망의 신, 죽이는 신이다. 생명의 신이 되는 생명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신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악령자가 감싸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호흡할 때에 공기가 들어온다.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폐로 들어갔을 때 산소라는 물질 중에 있는 생명자라는 물질을 적혈구가 잡아가지고 운반해서 온 몸에 있는 세포에 전달한다.

그러면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사람의 몸이 움직이고 힘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자의 능력이다. 그래서 생명자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를 음식 속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 생명의 원동력은 산소 속에 있는 생명자이다. 이걸 첨단 과학자들도 모른다. 오직 구세주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몸에는 생명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악령자도 들어온다. 그 악령자는 생명력이 되는 생명자를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뻐하거나 만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그 생명자의 물질이 악령자에게 먹히지 않는다.

악령자가 피를 썩히는 주범

“죽느냐 사느냐,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다. 마음에 따라서 영생도 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법(자유율법)을 지켜야 한다. 반대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람의 주체 영인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악령자다. 악령자가 몸에 피를 썩혀서 죽게 하는 것이다. 이 또한 과학자나 의사들은 모르고 오직 구세주만 아는 것이다.

구세주는 세상말로 만물박사다. 모르는 것이 없다. 사람의 생명을 영원무궁토록 연장시키는 방법도 구세주는 알고 있다. 사람이 웃으면 핏속에서 생명자가 발생한다. 그래서 생명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강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악령자를 없애버리게 된다. 그래서 병이 낫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희열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생명자가 많아져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생명자가 작아지고 악령자가 많아지면 사람은 꼭 죽는다. 사람을 미워한다면 화를 낸다든지 욕심을 많이 부린다면 하면 악령자가 점점 많아져서 생명자가 힘을 못 당해서 죽고야 마는 것이다.

사람이 죽지 않는 방법, 사람이 병 안 걸리는 방법, 마음에 달렸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진심으로 좋아해야 한다. 그러면 생명자가 많아져 영생한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 누구의 사정도 내 사정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극치의 선한 마음이며 아름다운 마음이다. 극치의 아름다운 마음, 극치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영이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뜨거운 불이 오고 시원한 것이 느껴져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엎드려 상·하체 근력 강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근육이 줄어드는 중·장년층의 교감신경은 체온이 높으면 팍팍을 열고 혈관을 확장해서 열을 방출하며, 체온이 낮으면 그 반대로 해서 열을 보호한다. 요가로서 근육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신선한 제철음식,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다. 근력을 키우면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높아지므로 더위와 추위에도 체온유지에 도움이 된다.



비행기 자세 1.2

동작①: 무자세 (몸의 균형 잡아줘 집중력 향상) 두 발을 모아 선 채로 오른쪽 발 바닥을 왼쪽 허벅지 안쪽에 댄다. 천천히 가슴 앞에서 두 손을 모아 호흡한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②: 양팔을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숨을 내 쉬며 상체와 한쪽 다리를 동시에 위로 들어 올린다. 가슴을 충분히 들어 올린다. 20초 유지. 좌우 교대로 3세트.

손바닥을 턱밑에 3.4

동작③: 엎드린 자세에서 손바닥을 포개 턱밑에 대고 몸 전체를 바르게 펴준다. 척추와 기립근에 힘을 주어 의식을 두고 호흡을 조절한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늘려준다. 20초 유지. 3회.

하체 들어 올리기~

주의: 허리와 어깨에 힘을 빼고 허벅지의 힘으로 올린다.

동작④: 다리를 모으고 숨을 내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린다. 허벅지 안쪽 내전근에 의식을 두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긴장을 놓지 않고 내려온다. 20초 유지.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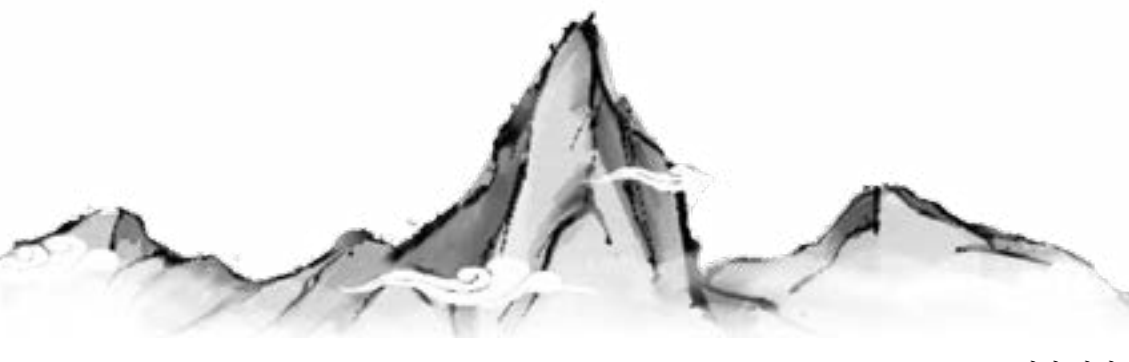
歌廣總論(六) 가사총론

人道儒 인도유와 地道佛 지도불이
日落之運 일락지운 말은故고로
洛書夜運昏衢中 낙서야운혼구중에
彷徨霧中失路 방황무중실로로서
儒佛仙 유불선이各分派 각분파로
相勝相利 상승상리말하지만
天堂 천당인지極樂 극락인지
彼此一般 피차일반 다못하고
平生修道十年工夫 평생수도십년공부
喃喃無阿彌陀佛 남무아미타불일세
春末夏初四月天 춘말하초사월천을
당코보니虛事허사라

인륜 도덕을 말하는 유도와 후천 지도(地道)인 불도는 해가 서산에 지는 운을 맡은 고로 낙서인 밤의 운수를 만나서는 아등고 두려운 가운데 마치 안개 속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은 나머지 유불선이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 서로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천당인지 극락인지 피차일반(彼此一般) 다 못하고 평생수도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일세.(헛수고일세). 춘말하초(春末夏初) 사월천(四月天)을 당코 보니 허사가 되느니라. 춘말(春末)은 진(辰), 하초(夏初)는 사(巳) 즉 진사성인(辰巳聖人)을 말한다. 진사성인이 나오면 기존의 유불선이 주장하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됨을 뜻한다.

儒曰知識平生人道 유왈지식평생인도
名傳千秋後後論 명전천추사후론과
佛曰知識越一步 불왈지식일보로
極樂入國死後論 극락입국사후론과
仙曰知識又越步 선왈지식우일보로
不死永生入國論 불사영생입국론을
三聖各異主張 삼성각이주장하나
儒佛乘運 유불승운 됴음으로

진사성인(辰巳聖人)이 나오면 유불선(儒佛仙)의 주장이 다 허사(虛事)가 되리라



河上公 하상공의 永生論 영생론을
眞理不覺儒士 진리불각유사들이
異端主張猶認 이단주장창인하야
儒生 유생들을 가리치니
坐井觀天彼此之間 작정관천피차지간
脫劫重生 탈겁중생 제탈소나
富死貧生末運 부사빈생말운에는
上下分滅無智者 상하분멸무지자일세

유도의 지식은 평생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닦아서 이름을 아주 오래도록 남겨야 한다고 하는 사후론(死後論)이요, 불도의 지식은 이보다 한 걸음 뛰어넘어 죽은 다음 극락에 들어간다는 사후론(死後論)이요, 선도의 지식은 또 한 걸음 더 뛰어넘어 불사영생하여 지상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론으로 세 성인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유도 불도가 먼저 운을 타고 있음으로 하상공의 영생론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교의 선비들이 미처 날뛰고 부인하며 이를 이단이라고 주장하여 유생들을 가르치니 우물 안에 들어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좁은 시선으로 피차기간에 탈겁중생의 이치를 저들이 어찌 알겠는가?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은 죽을 것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살게 되는 말운(末運)에는 사람을 상하(上下)로 구분 지우면 멸망을 받으리니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나라.

一知不二無知者 일지부이무지자야
黑石皓 흑석호를말하지만
海印造化不覺 해인조화불각하고
鷄龍白石 계룡백석 되단말가
先天秘訣篤信 선천비결독신마소
鄭禽只 청침지는 虛禽只 하침지세
天下理氣變運法 천하이기변운법이
海印造化 해인조화 다잇다네
地理諸山十處 지리제산십처에도
天理十勝 천리십승 될 수 있고
天理弓元勝地 천리궁궁원승지도
人心惡化無用 인심악화무용으로
弓乙福地—處 궁을복지일처인가
好運 호운이면 多勝地 다승지라
日中之變及於世界 일중지변급야세계
大中小魚其亡 대중소어기망으로
全世大亂蚌鰲之勢 전세계대란방울지세
尙黑者 상흑자는 生생하니
愛憐如己天心和 아련여기천심화로
人人相對 人人상대 하엿에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한 사람아, 검은 돌이 희어진다고 말하지만 해인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고서 계룡의 돌이 희어진다고 말하는가? 선천 비결을 너무 믿지 마소. 정침지는 허침지 일세.
천하의 이기(理氣)가 변화하면서 움직이는 법칙이 해인조화에 다 있다네. 지리상의 십처(十處)인 여러 산들도 하늘의 진리에 맞으면 천리(天理) 심승이 될 수 있고 천리 궁궁의 근본이 되는 십승지(十勝地)도 인심이 악화되면 쓸모가 없어지나니 궁을 심승의 복지(福地)가 한 곳 뿐이던가? 호운(好運)이면 여러 곳이 심승지가 될 수 있느니라. 일본과 중국의 전쟁이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중소(大中小) 국가가 다 망하게 되어 마치 황새가 조개에게 물린 형국이 되리라. 한 덩어리로 몽치면(尙黑=黨) 살 수 있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온화하게 상대하라.*

박영희 / 고사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진리 감람나무는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 전도 문답 [51]

질문: 성경상의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성경상에 보면 ‘감람나무’와 ‘감람산’이 자주 언급되는데 여기서 감람산은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의 날에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또 이곳에서 예수가 승천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의 성전이 또한 이곳에 있는데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교들이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각각 수 세기에 걸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처럼 감람나무와 그 나무가 밀접되어 있는 감람산은 중요하게 신성시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육적인 감람나무 기름을 머리 에 부어주는 것은 그림자로 행한 것이고 이 기름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 것입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 아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 아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 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스가랴 4:11-14)
여기에서 오늘날 유명한 성경학자들

은 구약 성경 스가랴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 하고, 신약 계시록 11장의 두 감람나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감람나무 예언이건 신약의 감람나무 예언이건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과거 인물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야 옳습니다.
위의 성경 속의 감람나무는 금같은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했는데, 기름은 성령을 뜻하고 금은 매우 값진 것을 뜻하고 또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같은 기름은 ‘최고의 성령’을 말하며 다시 말해 완성의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류에게 영생하게 하는 이슬성신(호세아 14:5)이요 불경의 감로요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불사영생의 불사약이 됩니다.
여기서 금같은 기름이 이슬성신이고 감로라 말했는데 이 감로는 영생하게 하는 불사약이 된다고 하였으니 감람나무는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주인공 이자 이기신 하나님의 대명사입니다. 둘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절복임을 받아야 참 감람나무가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몸(둘 감람나무)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나무(참 감람나무)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감람나무가 죄인의 마귀 몸에 절복임이 되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 사람이 하나님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